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보도

2018. 10. 18(목) 조간부터

배포

2018. 10. 17(수)

책임자

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3775-9035)

작성자

전용식 연구위원(3775-9035)

홍보담당

최원 선임연구원(3775-9057)

총 6매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고서 발간

2018년 보험가입률 98.4%, 가입 의향도 줄어..성장 여력 감소

-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보험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결과인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하여 조사함
 - 또한, 주요 현안인 기술발전, 사이버보험, 자연재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건강생활서비스, 노후생활 준비 실태, 연금 가입상태 및 가입 니즈와 관련된 조사결과도 포함하고 있음
-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임

가구당·개인별 보험가입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으나 2015년에 비해 낮음

- 2018년 보험산업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8.4%로 전년 대비 1.4%p 상승함
 -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이 전년 대비 1.0%p 상승한 85.9%였으며, 가구당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91.0%를 기록하였는데,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이 생명보험보다 높고 상승세도 더 컸음
- 2018년 전체 개인별 보험가입률도 전년 대비 2.2%p 상승한 96.7%로 조사되었는데,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의 상승세가 컸음
 -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79.5%로 전년 대비 1.3%p 상승하였

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80.0%로 전년 대비 1.6%p 상승하여, 손해보험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상승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결과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지만 2015년 수준에 비해서는 낮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조사결과 개인 및 가구별 가입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음

〈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가구	생명보험	83.0	85.8	87.2	81.8	84.9	85.9
	손해보험	86.8	87.7	91.8	88.9	89.5	91.0
	전체	96.1	97.5	99.7	96.3	97.0	98.4
개인	생명보험	77.3	79.3	78.9	73.4	78.2	79.5
	손해보험	74.6	74.3	79.7	76.2	78.4	80.0
	전체	94.0	93.8	96.7	93.8	94.5	96.7

* 손해보험 가입률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됨

질병, 상해에 대비한 보험수요는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

□ 2018년 생명보험 질병 보장보험과 손해보험 상해보험 가입 의향은 각각 10.3%, 5.4%로 지난해 8.5%, 2.9%에 비해 소폭 상승함

○ 나머지 보험종목은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보험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가입률		가입 의향	
		2017	2018	2017	2018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26.5	28.6	5.9	5.5
	질병 보장보험	63.4	60.0	8.5	10.3
	재해 상해보험	15.7	17.5	5.8	6.1
	간병보험	1.9	2.5	9.6	10.0
	사망보험	18.7	21.4	3.7	3.5
	저축성보험	4.2	4.1	5.7	6.9
	연금보험	12.4	8.9	8.6	6.9
	어린이보험	1.5	1.6	1.2	1.9
	변액보험	5.0	7.1	0.7	1.4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47.5	46.2	44.1	34.4
	장기손해보험	68.9	71.1	5.0	4.6
	상해보험	0.9	3.5	2.9	5.4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도는 높지만 금융상품 관련 정보는 지인을 통해 얻음

- 평소 필요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경로로 인터넷(45.0%), 부모, 친구 등 주위사람(34.3%), 텔레비전/라디오(19.3%), 신문(1.4%)의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44.1%), 직접 만나서 대화(32.1%), 전화(23.2%), 이메일(0.6%)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재, 금융상품 등을 구입할 때 구매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로는 '주위 사람의 추천'(58.5%)이 가장 많고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지인들의 추천'(15.9%) 순임

낮은 보험료(수수료) 혹은 높은 금리,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으로 금융상품을 구입

-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16.2% 수준임
 -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종류를 살펴본 결과, '예·적금'이 4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43.2%), '주식/펀드'(21.7%)의 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험료 혹은 수수료가 저렴해서(예·적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서)'가 51.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편리해서'(41.9%), '금융기관 종사자 혹은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8%)의 순으로 나타남
- 아직까지는 인공지능보다는 대면채널을 통한 상담 및 가입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일상적인 삶을 관리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하여 개인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할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8.8%로 '가입을 고려하지 않겠다'(33.8%)에 비해 낮게 나타남

사이버보험 판매 사실을 대부분 응답자가 모르고 가입 의향은 10% 미만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과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아니오'가 각각 91.6%, 94.7%로 나타나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이버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9.5%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폭력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약 4.3%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 시, 자신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낮은 편이다'는 응답이 38.0%로 '높은 편이다'(18.8%)는 응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적어져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54.1%로 지난해 조사 때(61.0%)보다 오히려 낮아짐
 -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공적연금' 44.2%(52.6%), '은행예금' 22.0%(18.6%), '부동산' 11.1%(7.3%), '연금저축' 8.4%(13.6%) 등으로 나타남
 - * 괄호 안의 숫자는 2017년 설문조사 결과임
 -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38.8%로 지난해의 36.4%보다 높아지고, 다음으로 '소득이 너무 낮아서' 24.4%(30.3%), '관심이 부족해서' 13.7%(1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괄호 안의 숫자는 2017년 설문조사 결과임

조상대상 가구의 22.7%가 개인연금에 가입...불만족 원인은 낮은 수익률과 연금액

-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22.7%로 지난해 28.7%보다 낮아진 반면 개인연금 가입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71.5%로 지난해 69.6%보다 높아짐

- 개인연금의 가입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만족(71.5%), 보통(24.9%), 불만족(3.6%) 순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 불만족 이유로는 '수익률이 낮아서'(45.0%), 다음으로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3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개인연금 가입 의향을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27.3%로 지난해 23.6%보다 높아짐

퇴직연금 미가입 비율은 68.7%...DC형 가입자의 74.9%는 퇴직연금 수익률 몰라

-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없음'이 68.7%(2017년 60.1%)로 가장 많았고, DB형 20.7%, DC형 9.5%, IRP 2.2% 순으로 나타남
 - 은퇴시점이 다가왔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살펴본 결과, 연금(74.9%), 일시금(25.1%) 순으로 나타남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난 1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을 알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알고 있다' 25.1%, '모른다' 74.9%로 나타남

보험회사의 대면 안내 등의 직접 개입과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의 생활습관 개선 실천계획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가 대면 안내 및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의 도움이나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규칙적 운동하기, 식생활 개선, 금연, 금주 혹은 절주, 스트레스 관리 횡수 늘리기 등의 실천계획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두 '6개월 이내에는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반면 보험회사의 대면 안내 등 직접 개입 및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개선(평균 10.7%p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직접도움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실천계획 여부〉

(단위: %, %p)

특성별	사례 수	6개월 이내에는 없다			30일 이내에는 아니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있다			30일 이내에 있다			즉시 참여 하겠다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없을 경우	있을 경우	차이 ¹⁾	
규칙적 운동하기	(785)	52.4	41.1	-11.3	27.9	28.9	1.0	15.0	19.6	4.6	10.3
식생활 개선	(1,614)	42.9	33.5	-9.4	29.9	30.7	0.8	19.1	23.2	4.1	12.6
금연	(470)	60.4	44.7	-15.7	23.8	30.2	6.4	12.6	14.5	1.9	10.6
금주 혹은 절주	(927)	56.0	45.4	-10.6	29.6	28.8	-0.8	10.4	15.9	5.5	9.9
스트레스 관리	(401)	39.4	32.9	-6.5	36.2	30.7	-5.5	16.5	19.0	2.5	17.5
평균(각 특성별 항목의 단순평균)		50.2	39.5	-10.7	29.5	29.9	0.4	14.7	18.4	3.7	12.2

주: 1) “차이”는 보험회사의 생활습관 개선 직접도움 및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없을 경우의 실천계획 여부 응답률과의 차이를 말함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자연재해보험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8.2%로 나타남

- 향후 자연재해보험을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가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49.6%로, ‘(가입) 계획이 있다’(19.3%)에 비해 3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할 의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49.5%로 ‘있다’(21.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적절한지 살펴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38.2%로, ‘적절하지 않다’(26.8%)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자연재해 피해 보상 방안으로 충분한지 물어본 결과,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2.0%로, ‘충분하다’(31.5%)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남

첨부 :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설명자료』 .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